



# 정교회주보

제2460호

2024.02.18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7> 판토크라토르 수도원(사진)은 아토스 성산 동쪽 해발 40~50m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14세기 중반에 설립되었다. 1390년과 1773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재건되었다. 성모님 전신(全身) 성상이 유명하며, 350권의 필사본과 3,5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성 안드레아 사도,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유물도 보존하고 있다. 15개의 성당이 있다.



마태오 제 17 주일  
한국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주일  
성 레온 로마 주교  
(제4조 • 조과 복음 4)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 주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6,16~7,1 (봉)265
- 복음경 : 마태오 15,21~28 · 12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나”에게 배워라.”(마태오 11,29 참조)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매일, 매시간, 조금씩 배워야 합니다. 온순하고 끈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의 일상적인 친밀성을 전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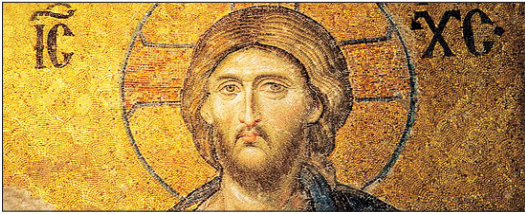
그분 옆에 있는 것, 그분을 듣는 것 말입니다. “나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세주는 각각의 영혼과 이 직접적이고 내밀한 관계를 열망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내적인 샘에서 흘러넘치는 분, 오직 그분만이 홀로 스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은 스승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우리의 뜻을 행하시는가?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마**태오 복음사가가 복음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가나안 여인의 만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믿음에 대해 상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마귀 들린 딸을 고쳐 달라는 여인의 요청에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마태오 15,28)라고 답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과 제자들과 또 그곳에 있었을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그토록 굴욕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가나안 여인을 향한 진심을 보여주시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감탄에 가득 차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대는 정말로 전투에서 이겼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대의 믿음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하니, 그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옳고, 의롭고, 거룩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경우에는 그녀의 인간적인 뜻이 이루어지라고 말씀

하십니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느님은 우리의 뜻이 거룩할 때,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기적의 능력이 숨어있었던 이 말씀(‘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은 “빛이 생겨라!”(창세기 1,3)라고 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창조주의 음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즉, 딸의 몸에서 마귀가 즉시 나갔고, 딸은 온전히 치료되어 건강하고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겸손, 인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과 백인대장의 믿음(마태오 8,5-13)을 보시고 그 믿음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백인대장 모두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대장을 칭찬하시며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냉담해진 유대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을 치켜세운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낯선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첫째,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믿음과 겸손으로 구하도록 노력합시다. 둘째,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하고 거룩한 것이 되도록 합시다. 즉, 우리의 유익함,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번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 이것이 삶이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해마다 마르틴의 부모는 아이와 함께 기차를 타고는 마르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마을로 가서 여름휴가를 보낸 뒤, 그 계절의 막바지에 같은 기차를 타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틴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전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에 저 혼자 갔으면 하는데요...”

마르틴의 부모는 잠시 의논한 뒤,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과 부모는 함께 기차역에서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다줄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기차 칸 밖에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일러준 부모는 아이와 작별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마르틴은 부모에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다 알아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윽고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만일 몸이 안 좋거나 불안하게 되면, 이걸 보거라.” 그리고는 아이의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마르틴은 처음으로 부모 없이, 바라던 대로 자유롭게 혼자 기차 안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사이에 그 주위에서는 낯선 이들이 서로 밀어대면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기차가 새로운 역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며 주위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기차의 차장은 아마도 대견하다는 듯이, 아이가 부모 없이 홀로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주위 승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안돼 보인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웬지 모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두렵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고, 혼자라는 사실에 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르틴은 기차역에서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었던 일을 생각하고는 몸을 떨면서 그것을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쪽지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맨 뒷칸에 타고 있단다.”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들을 믿어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맨 뒷칸에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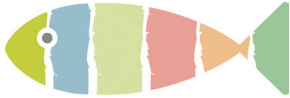
## 소 식

### ■ 가평 수도원 철야예배 안내

오는 3월 15일(금)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철야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를 원하는 분들은 준비 및 숙소 예약을 위해, 각 성당 사무실에 3월 3일까지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하거나 예약한 숙소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 정교회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한국 정교회의 기념일(2월 17일) 다음 주일은 한국 선교를 위해 봉사했고, 지금도 봉사하는 모든 성직자들, 협력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성찬예배 다음에 안식한 선교사들을 위한 추도식을 거행합니다.

### ■ 주일학교 진급 및 새 학년 시작을 위한 기도식

다음 주일(25일), 성찬예배 후에 기도식이 거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새 학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귀국

콘스탄티노플과 그리스에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7일 귀국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총대주교께서 한국 신자들에게 축복과 안부를 전해주셨고, 그리스에서도 많은 신자가 한국 교회를 위한 사랑과 관심을 전했습니다.

## 수행으로 정욕을 죽이다

성인의 가르침

하루는 요셉 사부가 친구인 피민 사부를 만나러 갔다. 피민 사부는 며칠간 선 채로 수행하고, 잠시 발을 물에 담그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요셉 사부 눈에는 그 모습이 엄격한 수행자의 모습과 좀 괴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피민 사부에게 물었다.

“일부 수행자들은 그들의 몸을 혹독하게 다뤘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

‘분별의 성인’이 말했다.

“형제여, 우리는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죽이는 것을 배웠다네.”

